

동북신문

江北區議會, 제144회 임시회 폐회

추기경정예산안 주민생활안정 위한 예산 증액편성, 양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처리

江北區議會(議長 劉聖星)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을 확정하며 제14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9일 장시간에 걸친 축조심사를 통하여 사실비 등 지급금이 낮은 사업예산 2건 7천562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비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6건 7천562만 원을 증액 실시하는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또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선)는 양대 상임위원회 명칭을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위원회'를 '행정보건의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는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올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의 신상발언으로 분위기가 달아났었는데, 박문수 의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마야동 한빛로당에

대해 전세를 얻는 대신 월세로 얻은 점과 구의회 주변도로에 명칭한 보도블록을 뜯어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형세 남발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이나 신상발언권을 얻은 박 의원은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도연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자료를 요구했다가 동점으로부터 묵살당했다며 이에 대해 관계국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은 "경위아파트도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본재를 제기한 뒤에 대해

소상이 밝히고 재발방지를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구본승 의원은 "9월 초순 구청장과 부구청장, 구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내역별 날짜별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출한 자료에는 날짜별로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희망근로자의 나이를 60세까지 제한하는데 대해 일의한 것도 약속한 서면답변을 아직 못받아 뵈었다며 박 구청장의 주관이 주인되는 형식에 대해 본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과 하 국장은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허성수 기자 sungshu@hmail.net)

시정신문



한·일 노야인 게이트폴 친선교류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을 확정하고 제1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3일 장시간에 걸친 축조심사를 통해 사실비 등 지급금이 낮은 사업예산 2건, 7562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비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6건, 7562만 원을 증액 실시하는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또 강북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를 '행정보건의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는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0년 한·일 노야인 게이트폴 친선교류 대회"에 참가자 내방한 일본 선수단이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를 방문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한 일본 선수단은 주체 측인 서울시 노야인협회 강북구지부 관계자와 함께 강북구의회를 방문한 뒤 본회의장 등 시설을 견학하고 유근성 의장(사진 가운데)과 환담을 나눴다.

권오도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어떻게 하나?

동북신문

朴文洙 강북구의원, 구의회 본회의석상에서 비리 지적하며 사퇴요구 파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朴文洙 (민주당·강북구·사단) 강북구의원인 6월 오전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드문드문 朴文洙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향해 작립문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날 신상임원을 통해 사퇴하기까지 줄곧 권오도 이사장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었다.

권 이사장은 앞으로 나와 사퇴해야 할 이유를 말했는데 당파고 말문을 열고 지방공기업의 대표를 뽑는데 있어 3인이 인기가 보였다고, 작년 1월 1일부터 취임해 행정안전부의 평가도 절반을 넘지 않았고 월급만 20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인 점을 들어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다시 발언권을 얻은 박 의원은 권 이사장에 대해 사퇴할 이유를 권오도 쪽에 물어보았다. 박 의원은 먼저 권 이사장이 올해 3월초부터 매주 목요일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경북대하에 관공청을 이용해 출근하면서 강의실을 쓴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설치 목적 제1호는 의하면 임원은 그 직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입구에 표시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하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이 올라오자 박 의원은 “권 이사장이 우리구와 경북대하의 관·학 교류 차원에서 행정의 전문성과 정보 상호협력에 관한 목적으로 한 개인이 영입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구청장 하기로 대학출신 당시 사관, 2009년 2월 계구부로 승진하고 있지만 당시사관도 이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데도 “강북구청과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전 구청장과 현 이사장 두 명이 운영하는 사기업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올해 4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 채용된 원정기사가 권 이사장의 조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공단에서 1억 8천 5000만원을 납부한 거사에 환급하지 않은 소송 중이라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권 의원인 같이 물었다. 권 의원은 “소송에서 패소한다 해도 돈에 대해 누구 책임일 것인가 따져 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 자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세부적으로 조사해 세관으로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3년 뒤 재출근은 소신 굿하지 않아

강북구의 유일한 공개기업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

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소속정당에 따라 인사가 바뀌어 왔다. 그러나 김현종 강북구청장 시절인 2009년 1월 1일 임용된 권오도 이사장은 3년 임기를 두 차례로 연장하며 재임했다. 임장을 고수해 박정수 강북구청장을 당선시킨 지역과 민주당에서는 난감해 하고 있다. 벌써 3기 이사장을 내정했다는 소리가까지 들리고 있지만 당시사관인 권 이사장이 지인사비할 기회를 전혀 보지 않고 있으면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기가 막힌 수단은 없어 이번에 박정수 구 의원이 출대를 메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정수 구청장이 당선된 직후 기자가 권 이사장에게 거부권제를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권 이사장은 무슨 소냐냐며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김현종 구청장의 측근도 아니다. 정립안이 김현종 구청장 후보시진 선거문제를 했던 것이고, 이사장에 재임하면서 인사비리가 발생해 중도하차하게 되어 다시 이사장 공채를 했다. 나를 비롯해 강북구청에서 국장을 재내 사관들이 여러 명 지원했는데, 바로 그들 때문에 강북구가 가장 공정한 사실을 거쳐 내기 하고 책임자를 결정했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정

지적인 인사기 바뀌어 왔다. 그러나 김현종 강북구청장 시절인 2009년 1월 1일 임용된 권오도 이사장은 3년 임기를 두 차례로 연장하며 재임했다. 임장을 고수해 박정수 강북구청장을 당선시킨 지역과 민주당에서는 난감해 하고 있다. 벌써 3기 이사장을 내정했다는 소리가까지 들리고 있지만 당시사관인 권 이사장이 지인사비할 기회를 전혀 보지 않고 있으면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기가 막힌 수단은 없어 이번에 박정수 구 의원이 출대를 메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6월 강북구의회에서 박정수 의원 이 포문을 열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권 이사장의 임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곧 정년으로 퇴직할 예정인 이 동국 상임이사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민주당의 신재기라는 말도 들려 권 이사장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구청에서는 정치적인 의중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정년은 지키는 것도 좋지 만 지방정부가 바뀐 이상 구청장직과 같이 갈 수 있는 인사를 임용할 수 있을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정수 권 이사장을 언제까지 재직보는 시선도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활동하는 한 인사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지로 바뀌기에는 2011년 12월말이 너무 멀다는 것이다.

(해설스 기자 sungshu@hmail.net)



권오도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게 아닌데...

강북구·경북대학간 관학협약에 따라 출강하게 돼 강사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항 취임하기 전에 잘못 납부한 세금 도로 찾으려고 조세심판 제기 한 것으로 환급받을 가능성 있어

권오도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6월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문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분노에 항의서를 보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출근 이사장이 업무시간에 대학 강의로 수업을 청강하면서 관공청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지난 3월부터 강북구와 관학협약을 체결하고는 경북대에 남양주 캠퍼스에 강의교수로 출강하여 소정의 살비 강의료를 받은 사실 이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와 경북대 학간의 관공교류 차원에서 출강하였으나, 강의료 수입과 관련하여 사는 부부합계 및 국민권익위원회 살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령 제13조의 절차와 다 외부 강의의 신고를 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0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구청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사료를 신고하였으나, 그러나 구민정서를 고려하여 한나라당 정경수의 질문에 따라 출강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아울러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공단 차원은 순수한 공단업무에만 사용하

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일 이사장의 5촌 조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1년 3개월간 직원 임무를 승합차가 이용해서 5대1급인 3월 31일자 로 임원용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서류상임사와 편성상사, 공단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근무일이 운영되는 이사장이 가장 많이 접촉하기가 주선하도록 권의하였는데, 저는 2개월간 말았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운전원을 추천하여 운영,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제가 좀 더 서러 갔지 못했음을 같이 부추리고 있습니다. 그 운전원이 이제 사비와 사비를 발행하고 시작서를 승인하고 할 뜻을 사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기재된 반환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부가기재된 환급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원인은 2009년 1월 1일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9년 1월 1일~6월 30일 상반기 경영분석보고회에서 부가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매출부가세를 구청장 편의의 사업자로 세무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부가세는 이사장 명의의 사업자로 세무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우리나 부가세입의 기원인원이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1일부터는 이사장 명의의 발급하는 매입부가세 계산서 발급을 구청장명의로 발급하기 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하반기부터 부가세를 반납해 약 4천 500만원 (1년 9만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요. 제가이사장으로 부

업하기 전인 2007년 1월 1일~2009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부가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액 108835000원을 국세기법 제14조의 심판과제 원칙과 조세와 공판과제가 상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제기 하였으나, 이미 최초로 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신청하였습니다.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둘레길 개통식

정양석 의원, 순례길 효시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 치켜세워
신지호 의원, 남은 도봉산 구간 예산확보 노력하기로 다짐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지난 7일 오후 2시 북한산 국립공원 수유탐방지원센터에서 둘레길 개통식을 거행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양석(한나라당·강북갑)·신지호(한나라당·도봉갑) 국회의원, 박경수 강북구청장,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 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 등의 인사들과 산악인단체 대표 등 중앙과 지역의 내빈들이 다수 참석할 가운데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열상시흥 순으로 시작됐다.

경과보고에서 송인순 공단(이사)는 정양석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며 공을 돌리고 내년에는 도봉산 구간의 남은 공사를 위해 신지호 의원이 적극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격려사에서 "북한산 둘레길 완공으로 노자, 어린이, 장애인들이 함께 국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되면 한다"며 "시민들 모두가 깊은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양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둘레길의 원조는 바로 순국열사묘역 순례길인데, 그것을 처음 조성하기 위해 2008년 당시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9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내가 확보해준 9억의 예산으로 순례길이 만들어졌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둘레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 김 전 구청장이 숨은 공로자임을 밝혔다. 이날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신지호 의원은 정양석 의원이 혼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쓴 별다른 한 일이 없는 자신이 같이 청찬을 받아 멋쩍다는 표정을 지으며 도봉산 구간의 남은 둘레길 개통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는 내빈들. 맨 왼쪽부터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양석·신지호 의원, 박경수 강북구청장,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 맨 오른쪽이 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북한산에 새로운 문화가 탄생해 축하된다"며 "강북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 둘레길과 더불어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현대사 박물관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축사를 했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형와대 경무대 터에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보았다"며 이만의 장관에게 "(김현풍 강북구청장) 민선4기까지 세웠던 삼각산

의 이름을 대신 북한산으로 부르려고 있는데, 정확한 산이름을 가르쳐달라"고 주문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최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